CUSHMAN & WAKEFIELD

2024 SEOUL OFFICE TENANT PROFILES

C&W KOREA RESEARCH

NOVEMBER 2024

Better never settles

CONTENTS

01
임대인 우위의 서울 오피스 시장

02
권역별 서울 오피스 임차인 분석

03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

01

임대인 우위의 서울 오피스 시장

임대인 우위의 서울 오피스 시장

01

주요 업무 권역 내 신규 오피스 공급 제한

02

종사자 수 증가로 임차 수요 확대

03

최저 공실률 및 최고 임대료 기록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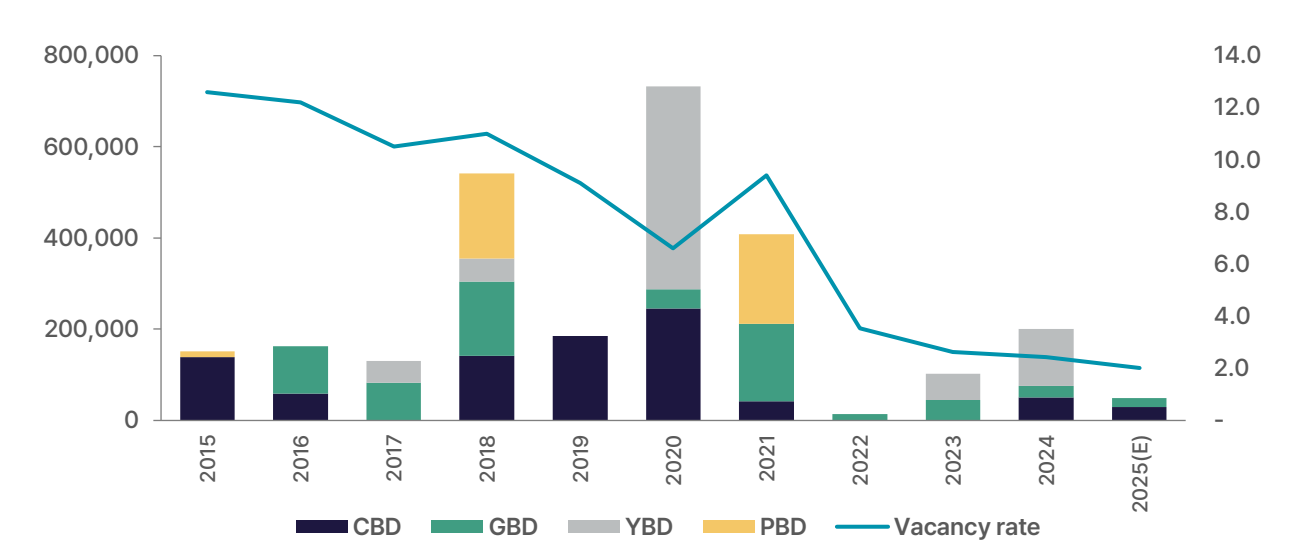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한 임차사의 잔류 결정

01. 신규 오피스 공급 제한

- 2023년부터 2024년까지 YBD, CBD, GBD 순의 규모로 신축 오피스 공급이 이루어졌거나 준공 예정임.
- 해당 기간 동안 YBD에서는 2020년 파크원 이후 최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가 완공되었는데 2023년 9월 앵커원, 2024년 2월에 공급된 TP 타워가 그 주인공임.
- CBD는 YBD의 뒤를 이어 2024년 4월 메리츠화재 신사옥, 충무로 15빌딩 등이 완공되면서 약 5만m²의 오피스 공급이 이루어졌음.
- GBD는 2023년 3월 스케일타워(타이거318)가 공급되었으며, 2024년 말 센터포인트 강남이 준공될 예정임.

서울 업무 권역 오피스 공급 면적 및 공실률

(공급 면적 : m²) (공실률 : %)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권역별 신규 오피스 공급 면적(2023년~2024년)

권역	빌딩명	준공시기	오피스 면적(m²)
YBD	앵커원	2023년 9월	57,717
YBD	TP 타워	2024년 2월	123,905
CBD	메리츠화재 봉래 신사옥	2024년 5월	30,209
CBD	충무로 15빌딩	2024년 7월	19,940
GBD	스케일타워 (타이거318)	2023년 3월	44,451
GBD	센터포인트 강남	2024년 12월(예정)	25,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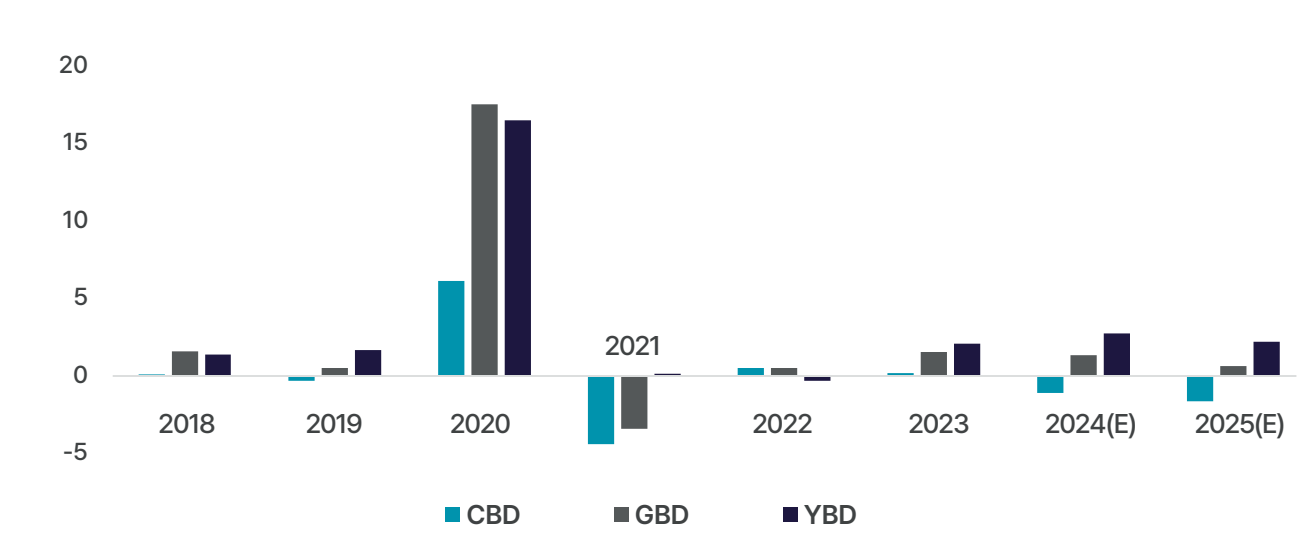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02. 종사자 수 증가로 임차 수요 확대

- 지역별 종사자 수 증가 및 감소 여부는 오피스 사용 인구의 증감을 파악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서울 주요 업무 권역 종사자 수는 업종 및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전체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는 GBD와 YBD 내 종사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CBD는 2024년부터 종사자 수 감소가 예상됨.

서울 주요 업무 권역 종사자수 연도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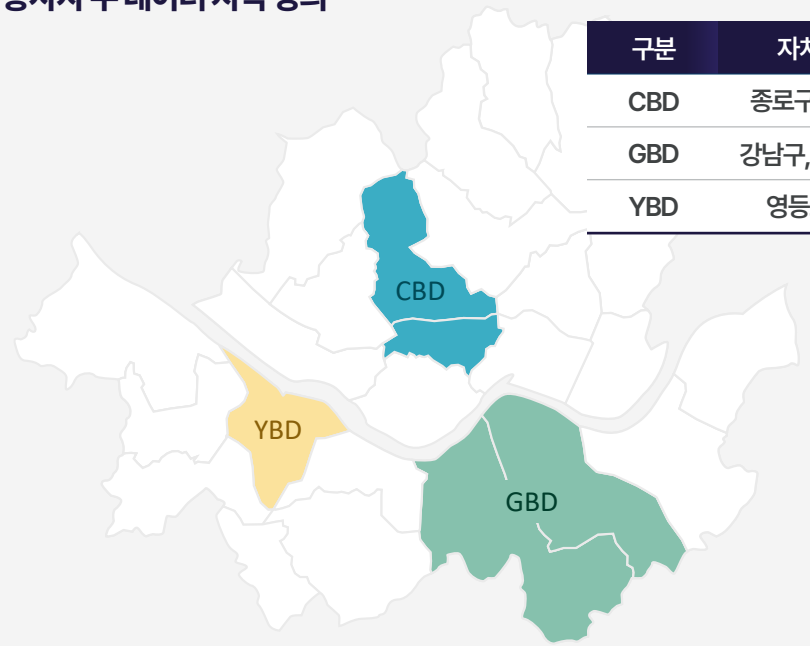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 통계청,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Cushman & Wakefield Research

NOTE : 2024, 2025년 종사자수는 추세 분석을 통한 추정치 적용

종사자 수 데이터 지역 정의



구분	자치구
CBD	종로구, 중구
GBD	강남구, 서초구
YBD	영등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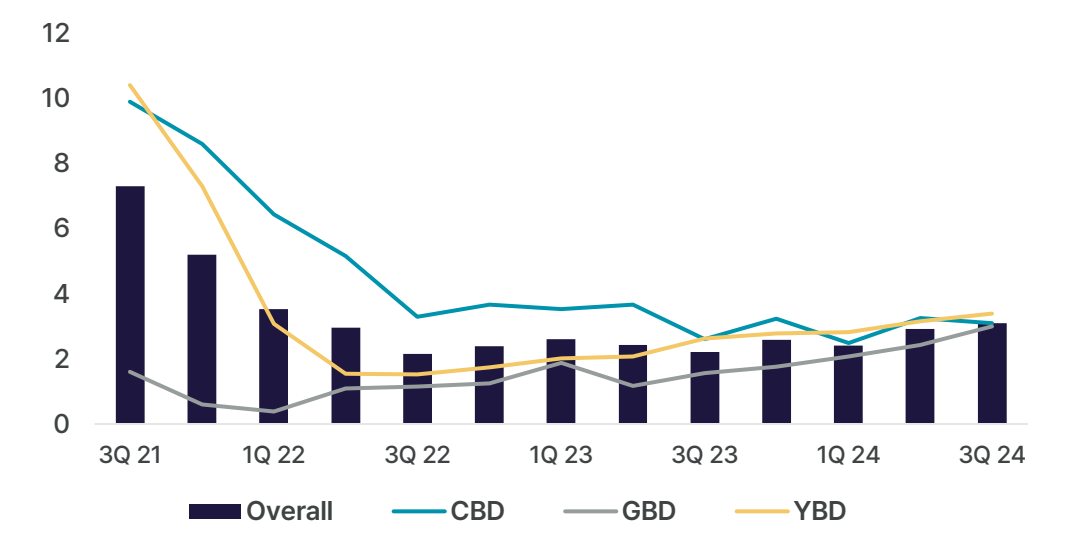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03. 최저 공실률 및 최고 임대료 기록

- 한동안 대규모의 신축 공급이 부족했던 서울 3대 오피스 권역 내 2024년 3분기 공실률은 3% 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YBD가 3.4%로 가장 높고, CBD 3.1%, GBD가 3.0%를 기록함.
- 신규 공급 부족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2024년 3분기 오피스 임대료는 2023년 동기 대비 3.4% 상승한 평당 약 1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 2023년 2분기 이후 GBD는 CBD를 제치고 가장 높은 임대료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GBD 내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임차 공간이 부족해 임대료가 치솟는 양상이 나타남.
- GBD 내 신축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투자자(SI)의 매수와 지분투자가 이어지면서 임대시장 공급량이 제한되었고,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음.

서울 업무 권역별 오피스 공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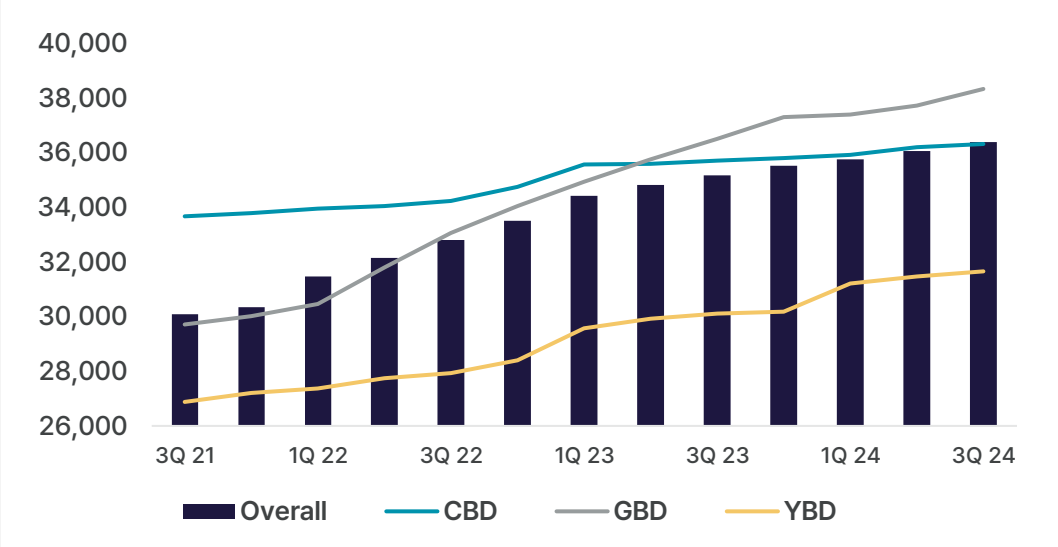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서울 업무 권역별 임대료

(단위 : 원/m²)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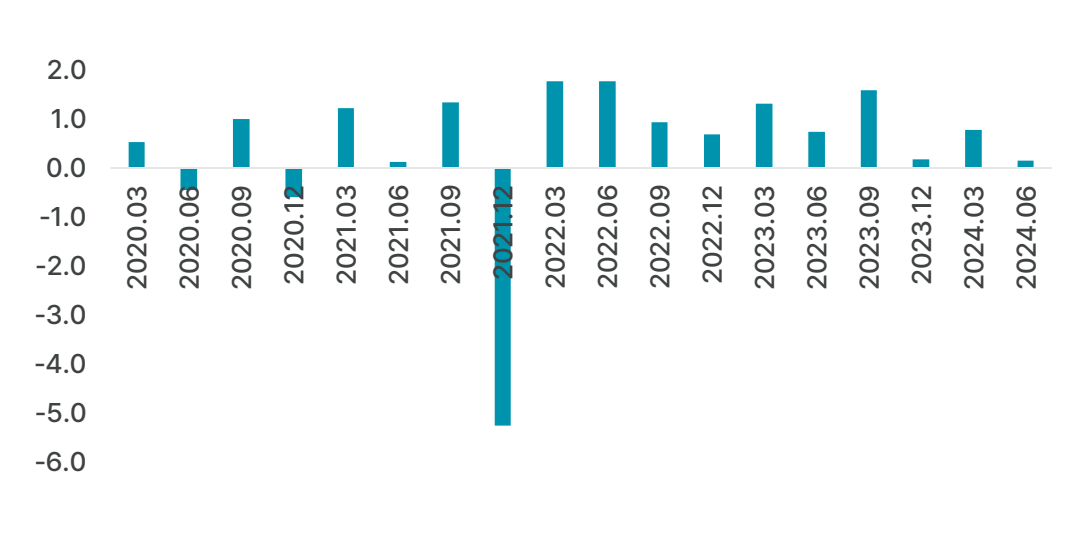
NOTE : 임대료는 관리비를 제외한 Asking Rent 기준

04.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한 임차사의 잔류 결정

-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2023년에는 서울의 오피스 인테리어 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음.
-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023년 평균 기준 약 32% 상승한 서울의 오피스 인테리어 비용으로 인해, 2024년에는 이를 고려한 대규모 임차사의 잔류 결정이 두드러졌음.
- 급등한 임대료와 이전 비용을 고려하여 현재 임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오피스를 동시에 검토하는 대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서울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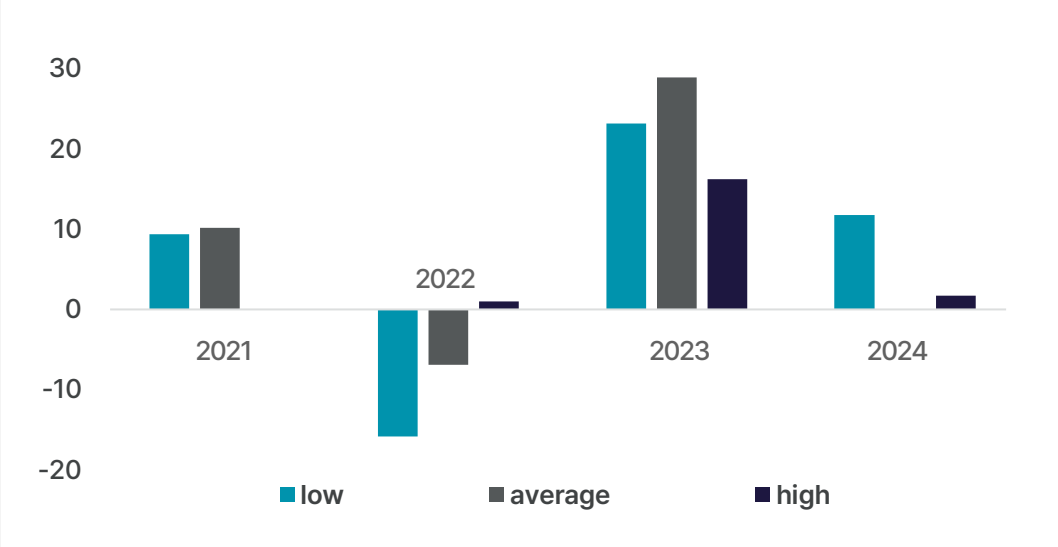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 통계청,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Cushman & Wakefield Research

서울 오피스 인테리어 비용 증감률

(단위 : %)



출처 : Cushman & Wakefield PDS

02

권역별 서울 오피스 임차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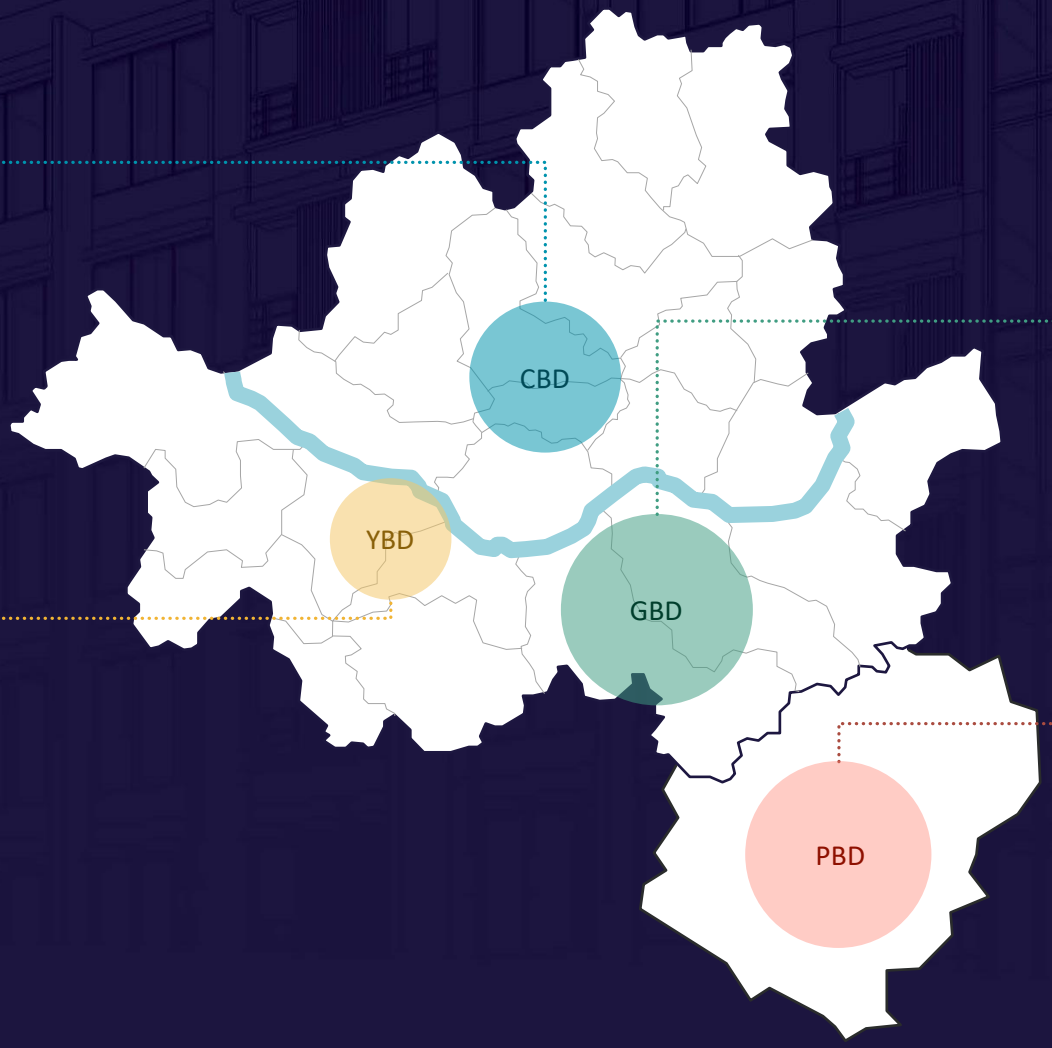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CBD

금융	서비스	제조
30.7 %	22.9 %	11.7 %
▼ 0.6 pp	▲ 0.1 pp	▲ 0.3 pp

YBD

금융	서비스	제조
54.8 %	15.9 %	8.9 %
▲ 1.1 pp	▲ 2.4 pp	▼ 1.0 pp



Seoul

금융	서비스	제조
32.9 %	19.0 %	12.7 %
▲ 1.6 pp	▲ 1.4 pp	▲ 0.4 pp

GBD

금융	도소매	IT
23.3 %	18.5 %	17.2 %
▼ 0.9 pp	▼ 0.1 pp	▼ 0.4 pp

PBD

IT	제조	금융
68.1 %	12.0 %	9.6 %
▼ 0.8 pp	-	▲ 0.2 pp

SEOUL

금융 및 서비스업 증가, IT 업종 감소

2024년 서울 및 판교권역의 오피스 임차인을 조사한 결과, 금융업-서비스업-제조업-도소매업-IT업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은 전체의 32.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메리츠화재 신사옥 이전 및 YBD 내 신축 건물에 금융업종이 대거 입주하면서, 2023년 대비 2024년 금융업 비중이 1.6 p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T 업종 비중은 4.1 pp 감소하면서 2023년 3위에서 2024년 5위로 하락하였고, 비중은 10.4%로 집계되었다. IT 업종은 코로나로 비대면과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2023년 14.5%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민간의 IT 스타트업 투자 및 정부 지원이 급감하면서 해당 업종의 비중 감소로 이어졌다.

서비스 업종은 모든 업무 권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1.5 pp 상승하였다. 이는 법무법인과 특허 관련 법인의 증평 또는 신규 지점 오픈이 주요 업무 권역 내 기업 지원에 기여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오피스 면적 중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2년에는 4.6 pp 감소했고, 2023년에는 감소 폭이 1.0 pp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도 0.5 pp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외국계 기업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시작된 외국계 기업의 재택근무 및 감평이 이어지며 2024년 외국계 기업 비중은 21.1%로 나타났다.

2023 2H ■ 2024 2H

Industry	Proportion(%)	GAP(pp)
금융	31.3% / 32.9%	▲ 1.6
서비스	17.5% / 19.0%	▲ 1.5
제조	12.3% / 12.7%	▲ 0.4
도소매	11.7% / 12.3%	▲ 0.6
IT	14.5% / 10.4%	▼ 4.1
건설,개발	3.4% / 3.5%	▲ 0.1
협회기관	3.3% / 3.4%	▲ 0.1
공유오피스	3.0% / 2.9%	▼ 0.1
미디어통신	2.7% / 2.5%	▼ 0.2
환경에너지	0.4% / 0.4%	0.0

Classification	Proportion(%)	GAP(pp)
Domestic	78.4% / 78.9%	▲ 0.5
International	21.6% / 21.1%	▼ 0.5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CBD

금융업 비중 감소, 제조 및 도소매업 소폭 증가

CBD에서는 금융과 서비스 업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임차사와 주요 업종의 면적이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서비스, 제조, 도소매, IT, 공유오피스 업종의 비중은 0.5 pp 이내로 소폭 증가한 반면, 금융, 건설 및 개발, 협회기관, 미디어통신 업종은 미미한 비중 감소가 나타났다.

금융업은 작년 대비 0.5 pp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며 권역 내 주요 업종의 자리를 지켰다. 메리츠화재 봉래 신사옥 입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의 권역 내 이전 및 증평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이전이 공실로 이어지거나 법무 법인 등의 서비스 업종으로 대체된 사례가 있어 전체 임차 면적은 다소 감소하였다.

제조업은 CBD 내 LG전자, 한화오션, 효성중공업 등의 대규모 제조업 본사가 위치하여 여전히 1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화시스템즈와 같은 한화 계열사, 제조업 기반 SK 계열사, 고려아연 등의 도심 유입이 이어지며 제조업 비중은 0.3 p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소매업 비중은 CJ올리브영의 임차 면적 확장과 태그호이어, 무인양품 등의 오피스 이전이 반영되며 0.5 PP 증가하였다.

공유오피스업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아트코리아랩이 도심 권역에 새롭게 문을 열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 2H ■ 2024 2H

Industry	Proportion(%)	GAP(pp)
금융	31.2% / 30.7%	▼ 0.5
서비스	22.8% / 22.9%	▲ 0.1
제조	11.4% / 11.7%	▲ 0.3
도소매	9.8% / 10.3%	▲ 0.5
건설,개발	6.5% / 6.1%	▼ 0.4
협회기관	5.8% / 5.5%	▼ 0.3
IT	5.3% / 5.5%	▲ 0.2
미디어통신	3.7% / 3.6%	▼ 0.1
공유오피스	3.1% / 3.3%	▲ 0.2
환경에너지	0.5% / 0.5%	-

Classification	Proportion(%)	GAP(pp)
Domestic	75.4% / 75.6%	▲ 0.2
International	24.6% / 24.4%	▼ 0.2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GBD

제조업 증가와 함께 이어진 IT 업종의 감소

GBD는 금융업종이 2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 IT, 서비스, 제조업이 1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며 다양한 업종의 임차사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GBD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제조업 비중이 1.6 PP 증가한 반면, 금융 업종은 0.9 PP 하락한 점이다. 도소매, IT, 서비스, 협회기관, 미디어통신, 환경에너지 분야는 0.3 PP 이내에서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였고, 공유오피스 및 건설·개발 업종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임차사 비중이 상승한 주요 원인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스케일타워 이전이 꼽힌다. 현대자동차는 스케일타워에 50% 지분을 투자해 현재 총 17개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오토웨이타워에서 사용하던 면적보다 넓어 제조업 면적 비중 증가에 기여하였다. 현대자동차가 떠난 오토웨이타워는 넥슨이 전략적 투자자로 지분을 매입해 계열사인 넥슨게임즈와 네오플이 입주하였다.

GBD를 선호하는 게임사의 인재 채용과 투자, 오피스 면적 확대 등이 이어졌지만, 강남 오피스를 선호하는 IT 계열 스타트업의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GBD의 IT업종은 0.3 P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의 금융 투자업체와 제2금융권 일부의 폐업으로 인해 강남 권역 내 금융 업종 비중도 0.9 P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 2H ■ 2024 2H

Industry	Proportion(%)	GAP(pp)
금융	24.1% / 23.3%	▼ 0.9
도소매	18.6% / 18.5%	▼ 0.1
IT	17.5% / 17.2%	▼ 0.3
서비스	16.1% / 16.2%	▲ 0.1
제조	14.3% / 15.9%	▲ 1.6
공유오피스	3.4% / 3.4%	-
협회기관	2.5% / 2.4%	▼ 0.1
건설,개발	1.8% / 1.8%	-
미디어통신	1.0% / 0.9%	▼ 0.1
환경에너지	0.6% / 0.4%	▼ 0.2

Classification	Proportion(%)	GAP(pp)
Domestic	75.2% / 75.9%	▲ 0.7
International	24.8% / 24.1%	▼ 0.7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YBD

신축 빌딩 내 금융업 강화 및 제조업 감소

YBD는 금융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금융 중심의 업무 권역으로 2024년에도 금융업 중심의 위상을 이어갔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 YBD의 업종 변화는 금융업이 1.1 PP, 서비스업이 2.3 PP 증가한 반면, 다른 업종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YBD 권역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여의도 사옥을 떠나 도심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건물인 TP타워와 앵커원빌딩에 금융업 임차사들이 입주하며 해당 업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TP타워에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종합금융 등이 입주를 완료했으며, 앵커원빌딩에는 유안타증권, 한국증권금융 등의 임차사가 입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업종은 GBD에서 파크원타워로 이전한 법무법인 대륜의 본사 이전에 영향을 받아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CBD와 GBD 등 주요 업무 권역에도 오피스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여의도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확대하기 위해 YBD로 본사를 이전했다. EY 한영회계법인의 권역 내 이동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관측되었다. 서여의도에 위치한 태영빌딩의 임차사였던 EY 한영회계법인은 2020년에 완공된 파크원타워로 이전하면서 업무 환경을 개선하였다.

제조업 비중은 한화금융센터 내 일부 계열사 변화로 1.0 P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시스템이 CBD에 위치한 한화빌딩으로 이전하면서 YBD에 있는 한화금융센터는 금융 계열 위주의 임차사로 재편되었다.

2023 2H 2024 2H

Industry	Proportion(%)	GAP(pp)
금융	53.7% / 54.8%	▲ 1.1
서비스	13.6% / 15.9%	▲ 2.3
제조	9.9% / 8.9%	▼ 1.0
IT	8.7% / 8.3%	▼ 0.4
도소매	5.4% / 5.2%	▼ 0.2
미디어통신	4.3% / 3.4%	▼ 0.9
건설,개발	1.7% / 1.4%	▼ 0.3
공유오피스	1.8% / 1.3%	▼ 0.5
협회기관	0.9% / 0.9%	0.0
환경에너지	0.0% / 0.0%	0.0

Classification	Proportion(%)	GAP(pp)
Domestic	83.4% / 83.3%	▼ 0.1
International	16.6% / 16.7%	▲ 0.1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PBD

IT 강세 속 서비스 및 금융 업종의 소폭 상승

PBD는 IT 업종이 68%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프트 등의 국내 IT 계열사들이 밀집해 있어 네트워킹이 수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카카오 계열사 중 하나인 카카오 스타일은 추가 임차 면적 확보를 위해 2024년 파르나스몰에서 판교 H스퀘어로 이전하면서 사무실을 대규모의 쇼룸 형태로 조성하였다.

PBD 내 대규모 IT 기업의 클러스터 형성에도 불구하고, IT 업종 비중은 작년 대비 0.8 P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감소, 강남 지역을 선호하는 개발자 이탈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개발 인력 뿐 아니라 벤처캐피탈(VC) 등의 외부 투자 기관도 강남 지역에 밀집해 있어, 투자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의 강남 지역 오피스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2024년 PBD에서는 서비스 업종이 1.0 PP 상승하였고, 금융업도 0.2 P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 및 특허 관련 업종의 증가가 서비스 업종 비중 상승을 견인하였고, 카카오뱅크의 증평이 금융 업종의 면적 상승을 주도하였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매출 신장을 이어가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올해 알파돔타워와 판교테크원 내 추가 면적을 계약하면서 임차 면적을 확대하였다.

2023 2H ■ 2024 2H

Industry	Proportion(%)	GAP(pp)
IT	68.9% / 68.1%	▼ 0.8
제조	12.0% / 12.0%	0.0
금융	9.4% / 9.6%	▲ 0.2
서비스	4.3% / 5.3%	▲ 1.0
도소매	1.9% / 1.9%	0.0
공유오...	1.9% / 1.9%	0.0
미디어...	1.1% / 0.9%	▼ 0.2
협회기관	0.1% / 0.1%	0.0
건설,개발	0.1% / 0.1%	0.0
환경에...	0.1% / 0.0%	▼ 0.1

Classification	Proportion(%)	GAP(pp)
Domestic	96.5% / 96.7%	▲ 0.2
International	3.5% / 3.3%	▼ 0.2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03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

01
GBD 선호 추세 지속 예상

권역별 임대료 변화 (2023년-2024년)

구분	23. 3Q 임대료	24. 3Q 임대료	Y-O-Y(%)
CBD	약 11.8만원/평	약 12.0만원/평	1.7%
GBD	약 12.1만원/평	약 12.7만원/평	5.0%
YBD	약 10.0만원/평	약 10.5만원/평	5.1%

GBD에서는 신규로 공급되는 오피스조차 전략적 투자자의 지분투자와 매입으로 이어지면서 임차 시장의 오피스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강남권역은 임차 시장에서 신규 공급 부족과 함께 높은 임차사 선호도가 반영되며 2023년부터 업무 권역에서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기록하고 있다. GBD는 IT 관련 스타트업 인재와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금융, 도소매, 서비스, 제조 등 주요 업종이 고르게 분포해 있어 당분간 현재의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02
임대료 상승률 완화 가능성 존재

공실률과 임대료 상관 관계 분석 논문

논문제목(연도)	저자	주요 내용
자연 공실률에 의한 서울 오피스 임대료 조정과정 (2012)	민성훈	• 대형오피스는 목표 공실률에 도달할 때까지 임대료가 조정되는 양상을 보임
서울 오피스 임대료 결정 요인 분석(2016)	양영준	• 공실률이 증가하면 렌트 프리를 제공하여 실질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존재함

임대료 급등으로 주요 업무 권역에 위치한 대기업들이 이전을 검토하면서, 임대료 상승률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랑서울에 입주한 SK그룹 계열사, 강남 센터필드 내 SSG 닷컴 등 대규모 면적을 사용하는 대기업들이 주요 업무 권역을 떠나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권역 내 오피스 공실이 자연 공실률 수준을 넘어서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에 대한 눈높이 차이가 조정되고, 이에 따라 실질 임대료 상승률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03
신흥 업무지구로 부상하는 마곡

마곡 내 신규 오피스 공급 면적

빌딩명(주소)	업무시설 면적(m^2)	준공일
원그로브 (공항대로 165)	123,756	2024.09.24
케이스퀘어 마곡 (마곡중앙로 105-7)	89,754	2024.10.08
르웨스트 시티 (마곡중앙로 143)	122,814	2024.10.24

주요 업무 권역의 임대료 상승률 완화 가능성을 예상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2024년 마곡 지역에 대규모의 오피스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24년 하반기 마곡에서는 약 10만 평 이상에 달하는 신축 오피스가 준공을 완료하고, 적극적으로 임차사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업무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와 신축 건물에서의 개선된 업무 환경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이 마곡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NOTE : 업무시설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업무시설 면적 합계 기준으로 작성

APPENDIX

Cushman & Wakefield Research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1회 씩 서울 주요 3대 권역과 판교권역에 소재한 A급 오피스의 임차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차인과 임차인의 업종, 임차인 별 점유 면적 및 국내/ 해외 기업 여부 등을 파악해 주요 오피스 권역의 임차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해당 자료는 권역 별 주요 업종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임차인 변화를 알아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2024년에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총 166개의 오피스 빌딩을 전수 방문조사 하였으며, 공식 문서를 참고하여 해당 자료를 추가 검토했다. 각 오피스 빌딩의 층별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였으며, 업무용으로 사용된 층별 면적만 반영하였다. 비업무용으로 사용된 지하, 옥상 기계실, 주차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면적은 제외시켰다.

임차인의 업종 분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10차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Cushman & Wakefield Research에서 총 10개의 업종으로 재 분류하였다.

Cushman & Wakefield 업종 분류 기준

C&W코드	표준산업분류10차	대분류
환경 및 에너지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제조	C	제조업
건설 및 개발	F	건설업
	L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도소매	G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L6812 제외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95, S9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T	J582, J62, J63	정보통신업
미디어 통신	J, IT 제외	정보통신업
금융	K	금융 및 보험업
협회 및 공공기관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U	국제 및 외국 기관
	S94	협회 및 단체
공유오피스	-	공유오피스업

CUSHMAN & WAKEFIEL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Suki Kim | 김수경 부장
HEAD OF RESEARCH
SUKI.KIM@CUSHWAKE.COM

YJ Choi | 최용준 상무
HEAD OF OCCUPIER SERVICES
YJ.CHOI@CUSHWAKE.COM

Jin So | 소진 과장
MANAGER
JIN.SO@CUSHWAKE.COM

John Pritchard | 존 프리처드 이사
DIRECTOR
JOHN.PRITCHARD@CUSHWAKE.COM

Madison Lee | 이유진 사원
ASSISTANT
MADISON.LEE@CUSHWAKE.COM

Ray Kim | 김성철 이사
DIRECTOR
RAY.KIM@CUSHWAKE.COM

CUSHMAN & WAKEFIELD

ABOUT CUSHMAN & WAKEFIELD

Cushman & Wakefield (NYSE: CWK) is a leading global commercial real estate services firm for property owners and occupiers with approximately 52,000 employees in nearly 400 offices and 60 countries. In 2023, the firm reported revenue of $9.5 billion across its core services of property, facilities and project management, leasing, capital markets, and valuation and other services. It also receives numerous industry and business accolades for its award-winning culture and commitment to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sustainability and more.

For additional information, visit www.cushmanwakefield.com.

Better never settles